

NEW & SPOT KITA SINNESWANDEL

In this project the designers' desired outcome was to create rooms that children feel free to explore and discover and at the same time offer places of retreat and safety. A tree is the symbol for growth and development, and this symbol was the inspiration for the design concept. The three floors represent the root, trunk and crown of a tree. The ground floor is dedicated to the young kids between one and three years. The color concepts for this group are warm and earthy colors ranging from violet, brown to red shades, symbolizing the root of a tree. The animals of this floor are a worm and a rabbit, both animals that are found around the trunk area of a tree. Vibrant yellows and oranges transition into the 1st floor designated for the older kids above 3 years of age. The furniture and room layout on this floor motivate kids to play, build and explore without the need of toys. A fox and a deer guide the kids to their rooms; both animals represent the area of the tree trunk- still grounded but already stretching and growing in height. The 2nd floor with its light and uplifting green and blue shades belongs to the oldest kids of the kindergarten. The 2nd floor portrays the crown of a tree with two typical animals: the owl and squirrel. The squirrel platform with its removable upholstery encourages the kids to construct their own creative scenarios. As a sweet alternative, it can be used as soft resting place.

디자이너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아이들이 자유롭게 탐구하고 발견의 재미를 경험하며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했다. 성장과 발달을 상징하는 나무는 디자인 콘셉트의 핵심요소가 됐으며, 세 개의 층은 각각 뿌리, 몸통, 나무의 꼭대기를 나타내는 요소들로 꾸며졌다. 1층은 1세에서 3세까지의 어린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디자인됐는데, 이곳은 나무의 뿌리를 상징하는 보라색, 갈색 등 붉은색 계열의 따스하고 흙의 느낌을 주는 색상들로 장식됐다. 이곳을 대표하는 동물로는 나무의 줄기 부분에서 주로 서식하는 지렁이와 토끼가 선택되어 벽면 곳곳에 그려졌다. 3세 이상의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인 2층은 활기찬 느낌의 노랑과 주황색으로 꾸며졌다. 2층의 공간 및 가구 배치에 아이들이 장난감 없이도 뛰어놀고, 무언가를 만들거나 탐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도록 계획됐다. 아직 미숙하지만 하늘을 향해 뻗어 나가고 있는 나무의 몸통 부분에 상응하는 동물로 디자인된 여우와 사슴은 아이들을 방으로 이끄는 안내 역할을 한다. 이 유치원에서 가장 높은 연령층의 아이들을 수용하는 3층 공간은 밝고 경쾌한 녹색과 파란색 계열로 꾸며졌으며, 나무의 꼭대기를 상징하는 이 공간의 대표 동물로는 부엉이와 다람쥐가 선택됐다. 덮개를 여닫을 수 있는 다람쥐 구멍이 뚫린 상자 더미는 아이들이 각자 창의적인 방식으로 상자를 조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들의 흥미를 유발할 뿐 아니라 아늑한 휴식공간으로도 사용된다. www.baukind.de



